



위기의 나이

송 종 호
동화작가

영세한 잡지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는 김찬오씨, 이제 나이도 4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잡지사 편집장이라는 자리. 그것도 재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잡지사이고 보니, 업무외적으로 겪어야 하는 난관들 또한 적지가 않았다.

박봉의 급료와 열악한 근무 여건,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으로 매달의 잡지를 만들려니 1인 다역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의 형편상 경험있는 기자들을 쓰지 못할 바에야, 잡지 기획으로부터 취재와 편집, 제작까지를 일일이 김부장 자신의 손으로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되풀이되는 외근이며, 야근 등으로 인해 김부장은 늘 파김치가 되어 있기 일쑤였다.

집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 마누라는 알뜰하기만 한 월

급 봉투에 늘 불만을 쏟아내고는 하였다.

그렇다고 박봉에 시달려야 하는 일터라고 해서, 적당주의로 호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持論)이고 보면,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나마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잡지, 읽히는 잡지, 우리의 매체문화(媒體文化)를 향상시키는 일에 디딤돌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그런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그래도 고민하며 묵묵히 잡지인의 길을 지켜가고 있는 그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TV와 신문 등에서는 한국 중년남자들의 건강문제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김부장의 마음을 자못 우울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 보도 내용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40대 중반 남자들의 사망률 세계최고’, ‘중년

남자들의 건강문제는 시한폭탄'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년 남성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그런 기사가 나가고부터, 중년 남성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으레가 40대 중반의 남성들 건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는 하였다. 사무실이며 음식점, 커피숍이나 술자리 등에서도 그 문제가 당연히 최대의 화제가 되고는 하였다.

그러자니 김부장도 자신의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늦장가를 들어 아이들이 이제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로서는, 만에 하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김부장의 신상에 요즘들어 무슨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그 까닭이 꼭 40대 중년 남성들의 건강 문제를 보도한 TV나 신문 기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까닭도 모르는 채 생활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그였다. 가정생활은 물론이었고, 직장에서도조차 예전과 같은 의욕과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의욕을 잃고 그저 습관적으로 매사를 처리하게 된 그였다. 기실, TV나 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난 이후, 김부장은 스스로의 건강상태가 남들만큼 좋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동창생 한 명이 암으로 세상을 뜨기까지 했던 터였다. 요즘들어 자신과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혹시 무슨 불치의 병에라도 걸린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 들어 갑작스레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될 까닭이 없지. 매사에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식욕마저 싹둑치 않으니...! 게다가 늘 몸이 나른해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얼마 전에 죽은 동창생도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감과 초조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김부장이었다.

마누라는 김부장의 그런 내심을 눈치채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 어디가 불편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겠어요. 내일은 병원엘 가서서 종합진단을 한 번 받아 보도록 하세요.”

마누라는 반드시 종합진단을 받아 보라고 성화였다.

김부장은 마누라의 성화에 못 이기는 채, 어느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게 되었다. 혈액검사를 비롯해서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검사며 심전도 검사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갑가지의 검사를 받았다. 그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다. 마누라는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김부장에게 선뜻 건네 주었다.

그 후 원고마감에 쫓겨 종합진단 결과를 자신이 직접 알아보지 못하고, 마누라를 대신 보내 알아보도록 하였다.

병원엘 다녀온 마누라는 생글거리는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당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일시적으로 의욕상실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영양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면 곧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부장은 마누라가 대신 알아보고 온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혹시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도, 마누라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의심이 일었다. 의사와 짜고서 하는 말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자 더욱 불안해지는 김부장,

그는 어느 날, 꿈 속에서 자신이 암에 걸려 쓰러지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래, 틀림없어. 난 분명 무슨 암에 걸린 걸 거야. 그것도 길어봐야 1년, 아니 몇 달 밖에는 살 수 없는 중증의 상태일지도 몰라...! 고얀 것들 같으니, 그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 들다니...!’

김부장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일에 대한 의욕이며 생활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직접 가서 진단 결과를 확인해 봐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병원을 찾아 갔다.

담당 의사는 얼마 전에 부인께서 결과를 알아보시고 가지 않았느냐면서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김부장이 머뭇거리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자, 의사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이 얼굴에 웃음을 지면서 말했다.

“부인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검진 결과 모든 게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관계로, 그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일시적인 의욕상실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신경과민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는 김부장이 믿을 수 있도록 검진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하였다.

의사를 만나보고 병원문을 나서는 김부장이었다.

그는 속으로,

‘어쩌면 내가 너무나도 신경과민이었을지도 몰라. 괜히 없는 병을 만들어서 혼자 앓고 있었던 것일지도... 그래, 이제부터는 보다 밝은 쪽으로, 희망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기로 하자. 아이들이 커나가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들이 걸려야 할 테니까...!’

김부장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상서로운 징조일까. 오늘따라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한층 더 푸른 빛깔로 비춰져 보였다.

한줄기의 소나기가 뿌리고 지나간 상큼한 여름날 오후였다. 